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즐겁게 안식할 날(찬57/새4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태현 장로 2부/박원규 장로 3부/박영선 집사 4부/도함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곧 오소서 임마누엘(이형구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Zion Subin Lee **이수빈**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호세아(Hos.) 6:4-11 ..... Altogether **다같이**  
4부/시편 100:1-5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7) 힘써 여호와를 알자!**  
4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감사라는 알람이 울릴 때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2,3부/예수님은 누구신가(찬94/새96장),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기적의 액체, 눈물이 있는 사람

Miracle Liquid, Tearful Peopl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 주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닦느라 지체되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주책없이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몇 번 울컥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후 교회 마당을 돌아다니며 이분 저분 만나 인사를 나누다가, 눈물이 전염된 한 성도님을 만나, 카페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다니는 눈앞에서 말씀에 눈물샘이 터졌다고 흐느끼며 다시 그 감동을 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수건도 없고, 그 흔한 휴지 조각도 없어서 맨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뭘 그런 것 가지고 우냐" 하며 이상해할 수 있는데, 그때 눈물 흘린 어색한 두 남자 마음에는 천국의 행복과 소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눈물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원액을 끌어 올립니다. 물 없이 우리 몸이 못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눈물이 없으면 말라 갑니다. 눈물은 썩은 영혼에 훈훈한 봄을 가져오며, 눈물은 사망의 밭에서 사랑의 움을 돋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생명의 양분이며, 기적의 액체입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 시편 56:8에서 시인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의 날들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놓고, 계수 즉 그 양을 재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눈금이 그려져 있는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의 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눈물 속에 영혼의 빛깔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복음이 심기고, 생명이 발아 합니다. 눈물의 영롱함은 공포의 풍랑을 몰아내고, 소망의 무지개를 뜨게 합니다. 우리 눈물로 봉사하십시오. 눈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눈물로 인사 나누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는 일꾼은 단연코 이 기적의 액체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Lord's Day sermon last week, I kept having to wipe off tears, causing delays. Even as I was delivering the message, I had to refrain from bursting into tears a few times. Even now, whenever I deliver messages of the cross, I can't help but to feel aching of heart. Once more, I had to begin a day with the praise song 'I thank God for saving me-'. After worship, as I was walking around visiting people in the courtyard, I met a congregation who had similar contagious tears. In front of café with many onlookers, we were two guys with tears bursting and sobbing in emotion while sharing His grace. It happens that I did not have a handkerchief or tissue that day. I could only wipe tears with my bare hands. Some may think it's strange that we were "crying over that sort of thing." But on that day, the hearts of these two awkward guys were sprouting with joy and hope of heavenly kingdom.

Like this experience, tears draw out the original essence of heart from deep within the soul. Just like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our spirits dry up without tears. Tears bring the warmth of spring season to hearts that are frozen solid. Tears bring sprouts to grow in deadened ground. That is why tears are nutrition to life, a miracle liquid.

In last week's QT passage Psalm 56:8, the author prays, "You have kept count of my tossings, put my tears in your bottle..." God counts our days of pain, puts my tears in His bottle and measures. Of course, this is a poetry expression, but what it means is that he will not forget our tears and will remember. He remembers our tears of pain, tears of joy, tears of emotion... tears of grace. He counts our tears by putting them in a measurement marked bottle. I feel close to people with tears of miracle. That's because you can see the color of their spirits in their tears. When those tears drop, gospel is planted, and life is formed. The beauty of tears drives away the storm of fear. It creates a rainbow of hope. Let's serve with our tears. Let's worship with tears. Let's greet with tears. Let's pray with tears. There will be miracles. Workers that God is searching for today are people with this miracle liquid.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 L AFC-7

LOVE ALWAYS FINDS CHRIS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4-11)

1. 주의 백성의 회개가 순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4절, 10-11절)
  
2. 선지들이 외치는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시다.(5절)
  
3.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십시오.(6절)
  
4.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예배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요?(7절, 참고/창 4:1-5)
  
5. 로마서 말씀을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롬 5:12-15, 고전 15:21-22)



■ 적용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찬94/새96장),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사역 소개  
의무/양호

# 하나님의 손길을 전달해요



2025년은 의무/양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때 순간마다 함께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작은 일상 속의 상황부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어려움까지도 평안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자상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베델교회의 의무실은 예배와 다양한 사역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까이에서 돌보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편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무실에는 AED와 상비약, 혈압계 등 필요한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후 간단한 건강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매주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의무실 사역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동역은 많은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정확한 때에 보내주셔서 위급한 순간들을 평안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 속에서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미 아름다운 팀워크가 자리 잡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사였고,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통해 배우고 격려받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세워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실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돌보며, 베델 공동체가 안전하게 예배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바야시지나 권사

사역 소개  
건물관리

# 보이지 않는 곳의 청지기들

건물관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모든 시설을 잘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 건물과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정리 등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며 은혜로운 환경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예방 차원의 관리, 필요한 수리와 개선 작업 등 여러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많은 사역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각 부서 모임을 위한 공간 준비, 성경공부와 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 정돈, 장비 관리, 갑작스러운 시설 문제 대응, 장기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회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을 잘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청지기적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믿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관리 사역은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본당과 편안한 좌석, 밝은 조명, 안전한 동선,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모두 이들의 꾸준한 섬김을 통해 준비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게 세워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안전하며 발전하는 교회 캠퍼스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송석원 장로



사역 간증  
101차 베델동산

# 하나님의 따뜻한 품



하나님의 두 팔에 꼭 안긴 듯 따뜻했던 베델동산에서의 2박 3일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마음을 가득 채워, 다시 그곳에 올라가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8년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특별한 사건보다는 방해 없이 기도만 드리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베델동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베델동산에 올라가는 길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일기예보에 걱정도 되었지만, 버스 안은 하나님을 나누는 행복한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 자리에 앉았던 자매님과 대화를 통해, 제가 꼭 들어야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듯했습니다. 긴 대화가 쉽지 않은 저였지만, 버스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그 길 자체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베델동산에 도착한 순간부터 봉사자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제 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와 상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드러내시고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지만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는 통로였습니다. 함께

했던 자매님들은 어느새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마주치면 서로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식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동산에서 가득 담아온 은혜는 내려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따뜻한 여운은 성령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더욱 선명히 느끼게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봉사자로는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봉사자로 다시 그곳에 서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베델동산에 다녀왔던 버스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듯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김민 집사**

지난 78차에 참가자로 올라갔던 이후, 이번에는 처음으로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베델동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조인할 때는 마음은 은혜를 받았다는 기대보다, 갑작스럽게 맞은 early retired의 충격과 혼자만의 우울감, 너무 많은 생각들에서 잠시 벗어나보고 싶어 '몸으로라도 봉사하면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부 봉

사를 통해 피폐해진 저를 회복시키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78차 이후 제 마음속에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던 죄와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민 초기와 달리 이제는 아이들도 장성했고 생활도 많이 달라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새로운 불안과 걱정,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했으니 관계도 좋은 열매가 있겠지'라는 교만한 기대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과 억울함에 갇혀 힘들었던 수많은 날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당연한 고난이라 여기며, 내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베델동산은 '회복'과 '치유'의 자리라는 것.

첫 봉사자 모임부터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교우들이 이렇게나 많고, 그들의 삶에 얼마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지... 그저 '섬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라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고, 순종의 습관을 만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마흔 두 분의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얼굴 외우기, 말씀 묵상(QT), Reading Jesus까지... 시간을 쪼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도전이 생기자 시작할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참가자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들의 간절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됨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안에 쌓여 있던 기도제목과 마음의 쓰레기 더미들은 중보기도의 은혜로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게 꼭 필요했던 회복과 치유를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지무지 애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정애 권사

예살  
새가족 환영회 후기

# 우리 주 안에 한가족

최근 처음 참석한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긴장과 약간의 기대 속에 환영회 장소에 들어서서 순간 따뜻한 미소와 반가운 인사로 맞아 주는 모든 청년들,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모든 스태프분들을 보며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베델교회가 어떤 비전과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소개를 시작으로 목사님과 각 팀장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품고 걱정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 및 게임 이후에는 준비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탁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어색함보다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 진심이 전해지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관심 있게 들어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영회에서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단순히 즐거운 활동을 넘어,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귀한 동역자들을 만남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앞으로의 예배와 모임이 더욱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열반인 베델교회 청년부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주열(청3)

저는 작은 교회에서 자라 예살과 같은 큰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2일 새가족 환영회는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살공동체의 목

회진을 만나고, 사역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살공동체가 단순히 규모가 큰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서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사실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환영회를 통해 저 역시 그 안에서 받은 환대와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베델교회와 예살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류다빈(청1)

너무 어색하기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있었고, 수고해 주시는 사역자분들과 팀장님들 이름만 익숙하고 잘 몰랐던 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 자매, 형제님들 만나고 대화를 하며 함께할 동역자를 만남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사역자분들, 새가족 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하진(청3)

베델교회 예살공동체의 많은 지체들과 대화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은 넘칠 정도로 풍성해서 마치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랜만에 흠어져 지내던 가족

들이 모여 작은 명절을 보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 주셔서 편안했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니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여호수(청2)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는 새가족들의 얼굴들을 볼 때면, 예살 예배에 처음 나오셨던 때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약간의 어색함과 긴장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곳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했던 새가족 분들이 새가족 환영회에서 셀목자와, 같은 셀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각자의 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각 셀 목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보게 됩니다. 셀원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셀목자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영회를 통해 이제는 새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예살 공동체가 된 모든 예살 지체 여러분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또한 예살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체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 베델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지섭(청3)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 사역광고

# 교사 감사 만찬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올 한 해 귀한 영혼들을 위해 흘리신 교사와 TA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사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는 교사와 TA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섬기는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학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부를 위해 섬겨 주신 모든 교사와 TA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담임목사님의 격려 말씀과 5년, 10년, 15년 이상 섬기신 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근속 교사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교육부 각 부서에서는 리더들과 함께 제작한 부서별 소개 영상과 간증을 통해 한 해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 순서로는 C2C Showcase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델 교육부와 교회학교에 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동일한 부흥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겨오신 모든 교사와 TA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사 만찬에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일시: 12월 7일(주일) 오후 4시- 8시(Child Care 제공)
- ▶ 장소: 체육관
- ▶ 문의: 현호승(Daniel) 목사 (949)677-4911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12/7: ①부-박지하	②부-백영만	③부-배진용	④부-김도윤
	12/14: ①부-송기평	②부-백권기	③부-변진	④부-김수빈
	12/21: ①부-손석환	②부-오세영	③부-송용훈	④부-김에스더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월)	12/6: 김 샘	12/13: 김홍순	12/20: 박관규	12/27: 박기홍
강단꽃(11,12월)	11/30: 서은숙, 이종선, 주정숙	12/7: 엄금연, 이지민	12/14: 김효경, 왕예진, 이수민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홍일(성형외과), 간호사-강지원      다음주 | 의사-최지수(치과), 간호사-이청하

###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포도헌금** 다음 주 주일(12월 7일)은 포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헌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헌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 **정기 제직회 및 교인 총회 공고** 정기 제직회에 서리 집사 이상의 제직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교인 총회는 만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제직회: 12월 6일(토) 오전 7시 30분 오이코스 예배 후, 본당  
교인 총회: 12월 13일(토) 오전 7시 30분 토요일 헵시바 예배 후, 본당

◆ **교사 감사 만찬** 한 해 동안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든 교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분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12월 7일(주일) 오후 4시, 체육관

◆ **오이코스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베델기도사역팀(기도학교, 골방기도, 레위기, 두드림, 기도편지, 연합기도)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2월 2일(화)~5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및 OICOS 예배 특송: 베델기도사역팀 (손웅주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2월 6일(토) 오전 6시, 본당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12월 3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베델한국학교 2026년 봄학기 등록**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한국학교가 2026년 봄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등록 부탁드립니다.  
학기 일정: 2026년 1월 24일~5월 16일(16주, 4월 4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학습 내용: 영성 훈련(QT),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 등  
신청 대상: 만 5세 이상부터 K-12학년 (2025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등록 사이트: <https://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QTin 영문판 판매** 12월 월간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내년 1월호부터 한글 큐티인이 월간으로 전환되며 내년 1월 10일(토)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에 한해 정기 구독 할인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qtin.org](http://www.qtin.org))  
문의: 김연조 집사 (714)333-6724

◆ **헌금 명세서** 2025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기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mailto:bethel@bkc.org)

◆ **UCI Sounds of the Season-Choral 콘서트** Irene Messoloras 교수의 지휘로 베델교회 본당에서 올해로 세 번째 열립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  
주최: UC Irvine Claire Trevor School of the Arts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기도해 주세요** 기니비사우 단기선교가 12월 4일(목)~12일(금)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3부 예배에 이현동/곽소이 집사의 딸 이수빈(Zion)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유승재 집사/이수미 성도 가정에 아들 유수호(Ian)가 지난 11월 22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등수 집사님(정기숙 권사, 김기옥 집사의 부친/정신군 집사, 김정훈 집사의 장인)께서 11월 22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임승현 성도님(임동억 장로의 부친, 임주연 권사의 시부)께서 11월 23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해동 집사님께서 11월 26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li> <li>■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li> <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 <li>■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 <li>■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 <li>■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li> <li>■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 <li>■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 <li>■ 편집장: 김경자 권사</li> <li>■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 <li>■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 <li>■ 번역: Grace Yi 전도사</li> </ul>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HOSEA LECTUR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L AFC -7**  
LOVE ALWAYS FINDS CHRIST

# Let's Strive to Know God!

(Hosea 6:4–11)

1. How does the passage express that the repentance of people is not pure? (vv.4, 10-11)
2. The words of the prophet become judgements to them. Meditate on that image and think about judgement of God's Word. (v.5)
3. Find two things God truly wants. (v.6)
4. The importance of worship can never be overstated. But, to say he does not desire sacrifice and burnt offering means what happened to the worship? (v.7, Ref: Ge 4:1-5)
5. Referencing Romans, let's summarize how we can know God. (Ro 5:12-15, 1Co 15:21-22)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Who, You Ask Me, is My Jesus (Hymn 94), As Morning Mist Covers the Eyes, The Most Precious Thing in Me